

대학 신입생의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및 정서적응의 관계

한 수 정* · 한 경 훈**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K지역의 대학교에서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 남녀 573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신입생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은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수업만족도이다. 그리고 음악교과 교양수업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만족 향상을 위해 효율성 있는 교수행동으로 스트레스의 변화를 촉진하고, 체험과 소통의 실기 위주 교양교육을 활성화하여 새롭게 차별화된 음악교과 교양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음악교양교육 실기수업의 효과적인 향상에 있어 단계별 학습 및 연속교육의 성인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교 교육문화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음악교과 교양수업,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학교적응, 회귀분석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 | | |
|--------------|---------|
| 1. 음악교과 교양수업 | 2. 학교적응 |
|--------------|---------|

I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 2. 분석방법 |
|----------------|---------|

IV. 연구결과

- | |
|--------------------------|
| 1. 기술통계 분석 |
| 2.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회귀분석 |

V. 논의 및 결론

* 전남대학교 강사

** 경희대학교 교수

I. 서 론

대학생활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성공 여부는 성인기의 사회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은 대학입학과 더불어 자아 정체감 확립 등의 중요한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새로운 대인관계, 독립적인 생활방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Coffman & Gilligan, 2002). Upcraft, Gardner와 Barefoot(2009)은 신입생들에게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지속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성과 인생관 확립, 올바른 진로 결정과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이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의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학업수행,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이며(한유경, 2009), 신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스트레스는 학업문제와 진로, 취업의 문제로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생생활문화원, 2001; 한양상담센터, 2010). 그리고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다른 학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지연, 임희경, 2005). 따라서 신입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의 지속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학교사회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와 원활히 교류하도록 하고,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수업만족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활의 스트레스 변화와 학교생활만족 및 사회적 적응력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교양교육으로서 음악에 대한 과목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예술적 경험이 부족했던 대학생들에게 음악적 지식과 창조적인 예술적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오지향, 김선미, 2009), 예술교육 담당 지도교사는 학습자가 선택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심미적 방편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적 영역을 표현하도록 지도하여(이은주, 2011),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예술학문의 소양을 균형 있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예술문화교육은 감성교육의 수단이며, 분석과 표현능력, 판단력과 사고력, 언어능력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돕는다. 프랑스에서는 예술문화교육이 전통문화에 현대적 기술이나 창의성을 통합하고, 예술문화와

과학기술분야 또는 일상생활 분야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조희연, 2011), 교사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자율성이 예술문화교육의 다양성을 여러 교육영역과 상호 협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많은 미적,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신입생 시기에 대학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예술문화교과 프로그램을 경험한다면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현대 신입생의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형성과 자기계발을 돕는 음악교과 교양교육은 학생 자신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여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교수자는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성 표현 능력을 증진하게 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활동을 장려하는 실천적인 음악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스트레스의 변화는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신입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학생 개인의 정서적 정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돕고 현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적응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그 보완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과 교양수업이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의 효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는 신입생의 원활한 대학문화로의 융합과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전인적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과 교양수업

음악은 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집단의 도덕성을 진작시킴으로써 개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량 때문에 적응적 가치가 있다(Kogan, 1997). 이는 음악이 집단의 유대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적응성 있는 긴장 및

이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Jang(2002)은 실제적인 음악 생활화의 방안으로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음악교육을 제시하였고, Mursell(1993)은 음악교육이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참된 음악은 총체적이고 풍부한 교양성을 가진다고 강조하였으며, 김근자(2009)에 의하면 사회화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다양한 조직의 음악활동으로 사회집단의 중요성과 협동심을 경험하게 한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정서적 정화와 전인적 교육을 제공하는 음악교과 교양수업¹⁾의 수업활동은 주로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서적·사회적 기술에 능숙하지 못한 신입생들에게도 비교적 표현이 쉬운 교과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의 표현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길러주고, 음악의 개념에 따른 반복 연습을 통하여 두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언어와 이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Wood, 1996).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음악교과 교양수업을 설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선영(2003)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실기 위주 과목과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고려하여 교양과목 개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현재 개설된 과목들도 수업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는 목적의 대학 음악교육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인간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대학 음악교육이 존재해야 하며, 음악은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인간’과 포괄적 시각의 ‘자유인’을 양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장지원, 2012).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음악교과 교양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과 교양수업이 신입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음악의 사용은 교육적 변화나 치료적 방향 설정에도 관련이 되며(Kaplan, 1990), 획일화된 활동이 아닌 노래, 작곡, 즉흥연주, 음악 감상을 사용하여 학교적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심혜숙, 박정미, 2003; Bruscia, 2006). 그리고 실제로 음악은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nser, 1999; Ostrander, Schroeder & Ostrander, 1994; Weinberg et al., 1995)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학업적응은 유의미한

1)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영역은 신입생을 위한 기숙교육 교양교과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 음악교과 교양교육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음악교과 교양수업은 기숙교육을 위한 예술문화 교양강좌로서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자유이수 영역의 교양교과에 해당한다. 또한, 음악교과목으로는 가창 실기, 재즈 피아노, 재즈 음악감상 등을 포함한다.

관계가 예측된다. 그리고 음악활동은 사회성과 의사소통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Keith, 2005), 음악활동은 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신체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활동의 다양한 기능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의 결속이나 이타적인 사회적 단결을 유지하고 형성할 수 있으므로(Huron, 2003), 음악교과와 교양수업과 사회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또한, 음악활동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Gardstorm, 1999), 학교에서의 집단 음악활동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정현주, 2006; 최애나, 박형준, 2008). 그러므로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개인-정서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음악교과 교양수업은 비언어적인 음악활동의 학습특성 때문에 학교에서 정서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생이 지닌 음악적 능력의 정서적인 표현은 음악수업의 과정에서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으로 만족감을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완화에 도움이 되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사회문화의 원활한 적응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입생의 음악교과 교양수업에서 창조적인 자기표현능력의 체험과 원활한 소통이 있는 우수한 수업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변화되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학교적응

1) 학교적응의 개념

적응이란 인간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Allport, 1961; Lazarus, 1976; Wentzel, 2003). Perry와 Weinstein(1998)에 의하면 학교적응이란 학교교육의 사회적 맥락에서 학업적 역할 수행과 행동적 역할 수행이며, Birch와 Ladd(1997)는 학교적응을 학생의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태도, 학교 환경에 대한 참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신입생의 학교에서의 적응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기능을 발휘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응은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자율적이고 자기 통제가 요구되는 낯선 상황에서 학습에 관한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에 대처하는 반응으로써(Rice, et al., 1995), 대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수업활동, 시험, 학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업적응에는 학업동기, 문제 해결 행동, 학업환경에 관한 만족감, 시간관리, 목적의식 등이 포함된다(김상아, 2009). 대학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 가운데 대학생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학업,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것이며(Baker, McNeil & Siryk, 1985), Cooper(1979)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물리적 학교환경과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은 학업성취향상을 위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직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응은 대학생들의 동료 및 교수와의 상호관계성, 대인관계, 과외활동 등의 영역을 말하며,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의 적응 정도와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나 부모와 같은 지원조직 형성, 교수 및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사회환경만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Deci와 Ryan(1991)은 긍정 심리학을 강조하여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있어 긍정적 정서만큼 효과가 큰 요인이 없으며 행복에 대한 원천으로 많은 학자가 사랑과 친밀감과 같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응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생활의 성공적인 기능과 생존 기술을 이끌어주며, 학업적인 적절성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최지영, 2009; Meadan & Monda-Amaya, 2008; Wenz-Gross & Siperstein, 1998).

개인-정서적응은 대학 내의 대학생들이 상호 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격 형성에서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과 자기 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말하며, 심리적·신체적 불편감이나 문제점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심각하고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부정적 기분, 학업 수행 부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보다 신체적·심리적 장애가 더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는 것을 말한다(Monroe, 1983; Gary, 2004). 또한, 대학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권석만, 2009). 따라서 대학생활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개인 내적인 정서적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쳐 정서를 조절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며(김희숙, 2006), 인격형성, 자기위치와 역할 등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

(1) 학교적응과 교수행동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교수행동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교사의 교수행동이며(신명희 외, 2002), 학생이 학습에서 몰입하게 되면 대학생활적응 및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이숙정, 2011). 즉, 교수자와 학생의 교류 및 상호작용은 중요한 것이며,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교수자는 수업의 특성에 따라 비언어적 활동의 체험실습과 실기교육을 모델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인교육과 예술적 학업의 소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교수행동과 학업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과 가장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교수자와 학생의 유대는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 적응력의 효과성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Stronge(2002)에 의하면 효과적이고 유능한 교수자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책임감과 존중감을 느끼게 해주며,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교수자는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수업과정에서 학생들과 직접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실습경험을 돕는 역할 임무를 수행하여 학생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교수행동과 사회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유지현(2012)에 의하면 학습상황에서 유발되는 학생의 정서는 학업과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교수-학습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정서적 탐색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 학생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잘 조절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적응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교수자는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수업과정에서 실습현장참여와 역할모델이 되는 실기 지도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적 교류에 있어 창의성의 표현을 돕고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학생들의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교수행동과 개인-정서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학교적응과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업의 과정에서 교수자의 효율성 있는 교수방법 전달능력과 수업환경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명주(2007)에 의하면 교양수업만족은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스러운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에 적극적인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 즉,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활동이 잘 전달되면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욕구가 강해져 수업 참여와 집중도가 향상되고, 사회적 만족, 정서적 만족, 환경적 만족을 느낌으로써 학업활동과 수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업만족도와 학업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수업의 참여에서 수업만족도는 대학생의 대인 관계성과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일수(2009)에 의하면 일반 강의식 전통수업방식은 경쟁학습구조를 유발하여 자아개념, 사회성, 대인관계, 자기주도 학습태도 등의 정의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은주(2004)는 수업만족이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 의사소통 과정의 결과로써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유익성과 만족감은 학생들을 원만한 대학사회생활로 유도할 수 있어 학교 내의 다양한 관계와 사회적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학생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업만족도와 사회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Merriam(2001)에 의하면 정서적 만족은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에 만족할 때 학습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므로 수업만족도는 지식 습득에서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특성에 적절하게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측면으로 만족하면 학생 자신의 건강상태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업만족도와 개인-정서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3)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Compas(1987), Stern과 Zevon(1990)은 일상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심리적·행동적 기능이 결정되고 이는 다시 성공적인 학업수행으로 연결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양현정(2003)은 대학생이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수준이 낮아지고, 일상적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학교생활적응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수면장애, 불안 및 우울은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트레스와 학업적응은 유의

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김현주·김광웅(2007)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맡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또한, 김지현(2012)·윤향숙 외(2011)에 의하면 대학생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잘 이겨 내어 정서적 안녕함을 경험할 때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 심하면 학생의 개인-정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어 개인-정서적 적응력은 감소한다. 즉,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트레스와 개인-정서적응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신입생의 적응적인 학교생활만족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이 연구의 대상은 K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1학년 남녀 573명이며,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¹⁾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에 포함되어있는 변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1)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영역은 학점이 부여되는 기숙교육 교양교과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 교육과정 예술문화 교양교육과는 구별된다. 또한, 분석 결과는 해당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숙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학교적응에 관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 학교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는 일반화할 수 없다.

<표 1> 측정도구에 포함된 변인 요소

변인	변인설명	척도 및 신뢰도
성별	학생의 남녀 구분	더미1(남=1), 더미2(여=1)
거주지	신입생의 거주지(기숙사, 자가 등)	더미1(자가=1)
수강동기	예술문화교과를 수강하는 동기 ①정서적 안정, ②수강교과의 이해③④⑤, 수강동기의 구분	더미1(정서=1), 더미2(교과=1)
연령	학생의 나이	만 17세~24세
교과유형	수강한 예술문화교과 ①무용 ³⁾ , ②음악, ③문화 ⁴⁾ ④⑤ 수강교과의 유형 구분	더미1(무용=1), 더미2(음악=1), 더미3(문화=1)
교수열정	강의 열정, 제스처, 강의 활력(3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34
과제제시방법	흥미로움, 호기심 자극, 수업내용의 이해용이(3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31
학습자 유도	자율적 수업참여, 강의내용 및 실습지도에 학생의견 반영(3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42
학습자 관계	학생에 관한 관심도, 피드백, 대화 정도, 유대관계(3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50
사회적 만족	교양수업의 학문적 가치, 평생학습 기여, 인격도야, 사회성 발달, 도덕성 함양, 대인관계, 만남의 기회 제공(7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56
정서적 만족	새로운 기회 제공, 성취감, 참여의 즐거움, 자신감, 재수강 의욕(5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30
환경적 만족	장소의 적합성, 부대시설의 편안함, 쾌적한 환경(3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821
수면장애	수면의 어려움과 문제점, 근심·걱정, 수면시간대의 불편사항(4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931
불안·우울	타인과 대인관계의 두려움, 조급함, 일에 관한 두려움과 힘듦, 열등감, 자신감 저하, 성격장애, 불행감, 우울감, 신경 쓰임, 흥분됨(10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912
학업적응	학업동기 및 실천, 학업성적만족, 학업목표, 학사학위의 중요성, 과제의 즐거움, 학업능력, 강의의 질과 수·종류만족, 출결상태, 학업의 즐거움, 수강과목만족, 교과 및 교수관계 만족, 학업상태만족(종속변인, 13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922

변인	변인설명	척도 및 신뢰도
사회적응	대학환경만족, 친목활동참여, 대학생활적응, 동료 및 교수와의 상호관계, 대학만족, 대인 관계적 유대, 과외활동만족, 대인관계기술, 인간관계의 불편함, 친목활동만족, 외로움과 이성관계, 타인과의 비교, 대학불만족, 대학 내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만족 (종속변인, 18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913
개인정서적응	긴장감과 예민함, 우울함과 피곤함, 자립심과 책임감, 감정조절, 식욕상태, 두통, 심리상당, 체중변화, 화남, 불면증, 사고능력 및 경제문제,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의 어려움 (종속변인, 15문항)	Likert형 척도(1점~5점) Cronbach's α 계수 .913

1) 교수행동 척도

교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권가희(2009)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하위 요인은 교수열정,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유도, 학습자 관계로 구성되었으며 총 12문항이다. 설문항목 요인의 구성 타당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831~.850으로 나타났다.

2) 수업만족도 척도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소연(2007)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은 사회적 만족, 정서적 만족, 환경적 만족의 구성으로 총 15문항이다. 그리고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821~.856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개발된 사회심리학적 건강측정

- 3) 여가의 무용교과는 기숙교육 교양강좌로 요가, 바디 컨디셔닝 등의 강좌이다.
- 4) 여기의 문화교과는 기숙교육 교양강좌로 한국문화답사, 박물관과 문화읽기, 와인의 이해 등의 강좌이다.

설문지를 김상룡(2009)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은 수면장애, 불안 및 우울로써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척도는 5점 Likert 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912~.931로 나타났다.

4)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기초로, 양혜선(2004)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등의 4가지 하위 척도로써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의 3개 하위 척도로써 총 46문항이다.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913~.922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 VIF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투입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학생배경 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가 신입생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영역의 변인들을 등간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차례로 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성별, 거주지(기숙사, 자가), 수강동기(정서적 안정, 수강교과의 이해), 연령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과유형(무용, 음악, 문화)을 투입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는 교수행동 요인인 교수열정,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유도, 학습자 관계를 투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4단계에서는 수업만족도 요인인 사회적 만족, 정서적 만족, 환경적 만족을 투입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인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을 투입하여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모든 측정변인의 기술통계값과 상관계수는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값과 상관계수는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를 알려주며, 회귀분석에 필요한 전제가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값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중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간에 높은 상관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인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두 개의 독립변인이 투입되더라도 하나의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는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나 공차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상관계수가 .80을 넘지 않거나 공차가 1에 접근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2> 표본자료 기술통계값

(N=573)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	VIF
성별	1.00	2.00	1.46	.49	.12	-1.99	.91	1.09
거주지	1.00	5.00	1.72	1.25	1.20	-.43	.94	1.05
수강동기	1.00	6.00	3.70	1.87	-.26	-1.40	.90	1.11
연령	17.00	24.00	19.42	.99	1.27	2.80	.92	1.07
교과유형	1.00	5.00	2.90	1.34	-.06	-1.36	.97	1.04
교수열정	2.00	5.00	4.28	.65	-.74	-.01	.43	2.32
과제제시방법	1.67	5.00	4.17	.73	-.77	.06	.34	2.94
학습자 유도	1.00	5.00	4.01	.82	-.57	-.18	.36	2.73
학습자 관계	1.00	5.00	4.01	.83	-.73	.28	.38	2.58
사회적 만족	1.43	5.00	3.91	.71	-.48	.03	.48	2.08
정서적 만족	1.60	5.00	4.13	.64	-.44	-.36	.49	2.01
환경적 만족	1.33	5.00	3.79	.85	-.28	-.66	.65	1.52
수면장애	1.00	4.75	1.31	.60	2.29	5.44	.47	2.10
불안·우울	1.00	3.70	1.53	.59	1.14	.49	.45	2.19
학업적응	1.77	5.00	3.73	.68	.03	-.65	-	-
사회적응	2.56	5.00	3.92	.59	-.07	-.80	-	-
개인정서적응	1.87	5.00	4.13	.66	-.63	-.48	-	-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계수

(N=573)

변인	A	B	C	D	E	F	G	H	I	J	K	L
A	1.000											
B	.717 (***)	1.000										
C	.609 (***)	.705 (***)	1.000									
D	.617 (***)	.661 (***)	.727 (***)	1.000								
E	.431 (***)	.496 (***)	.464 (***)	.502 (***)	1.000							
F	.409 (***)	.456 (***)	.457 (***)	.449 (***)	.644 (***)	1.000						
G	.377 (***)	.420 (***)	.380 (***)	.392 (***)	.465 (***)	.486 (***)	1.000					
H	-.234 (***)	-.228 (***)	-.175 (***)	-.176 (***)	-.157 (***)	-.201 (***)	-.134 (***)	1.000				
I	-.265 (***)	-.266 (***)	-.191 (***)	-.185 (***)	-.225 (***)	-.253 (***)	-.223 (***)	.713 (***)	1.000			
J	.341 (***)	.395 (***)	.355 (***)	.378 (***)	.442 (***)	.493 (***)	.481 (***)	-.179 (***)	-.329 (***)	1.000		
K	.361 (***)	.400 (***)	.358 (***)	.376 (***)	.461 (***)	.523 (***)	.457 (***)	-.335 (***)	-.530 (***)	.865 (***)	1.000	
L	.305 (***)	.327 (***)	.276 (***)	.275 (***)	.327 (***)	.335 (***)	.337 (***)	-.458 (***)	-.716 (***)	.598 (***)	.744 (***)	1.000

A=교수열정, B=과제제시방법, C=학습자 유도, D=학습자 관계, E=사회적 만족, F=정서적 만족, G=환경적 만족, H=수면장애, I=불안·우울, J=학업적응, K=사회적응, L=개인정서적응

 $p < .001$

2.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회귀분석

1) 학업적응에 관한 단계별 회귀분석

신입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 모형1, 2단계 모형 2, 3단계 모형 3, 4단계 모형 4, 5단계 모형 5의 F검증을 통한 회귀모형 적합도의 검증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형 1은 성별(남학생=1), 거주지(자가=1), 수강동기1(정서=1), 수강동기2(교과=1), 연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3.4%이다. 그리고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남학생=1)은 .136이고 수강동기1(정서=1)은 .242로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자가=1)는 .009, 수강동기2(교과=1)는 .097, 연령은 .05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에 포함된 변인에 교과유형 변인을 포함하였다. 모형 2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7.4%로 모형 2를 투입함으로써 약 4%의 설명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적응에 있어 교과유형 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유형2(음악=1)은 .276으로써 학업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유형1(무용=1)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투입된 변인 중 교과유형3(문화=1)은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유형의 3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1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성별(남학생=1)과 수강동기1(정서=1)은 교과유형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하였다.

모형 3은 모형 2에 포함된 변인에 교수행동 변인을 포함하였다. 모형 3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2.6%로 모형 3을 투입함으로써 약 15.2%의 설명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적응에 있어 교수행동 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된 변인 중 교수열정, 학습자 유도는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행동의 4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2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성별(남학생=1),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1(무용=1), 교과유형2(음악=1)은 교수행동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4에서는 수업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수업만족도 변인은 사회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정서적 만족 등을 포함한다. 3개 변인을 투입한 모형 4의 설

명량은 36.1%로써 모형 3보다 약 13.5% 정도 설명량이 많아졌다. 이는 학업 적응에 있어 수업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나 투입된 변인 중 사회적 만족은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후 성별(남학생=1)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1(무용=1), 교과유형2(음악=1),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결국,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1(무용=1), 교과유형2(음악=1),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관계는 수업만족도 변인으로 통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5에서는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스트레스 변인은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을 포함한다. 2개의 변인을 투입한 모형 5의 설명량은 39.1%로써 모형 4보다 약 3% 정도 설명량이 많아졌다. 이는 학업적응에 있어 스트레스 변인은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의 2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4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성별(남학생=1), 정서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은 스트레스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4> 학업적응 단계별 회귀분석

학업적응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표준화 회귀 계수
상수	2.606 ^{***} (.560)	2.600 ^{***} (.550)	1.478 ^{**} (.518)	.560 (.481)	1.311 ^{**} (.495)	
성별(남학생=1)	.136 [*] (.058)	.147 [*] (.058)	.162 ^{**} (.053)	.140 ^{**} (.049)	.139 ^{**} (.048)	[.101]
거주지(자가=1)	.009 (.071)	-.016 (.071)	-.021 (.065)	.025 (.059)	.015 (.058)	[.009]
수강동기1(정서=1)	.242 ^{**} (.083)	.198 [*] (.083)	.175 [*] (.077)	.075 (.071)	.071 (.069)	[.036]
수강동기2(교과=1)	.097 (.072)	.108 (.071)	.072 (.065)	.067 (.059)	.047 (.058)	[.028]
연령	.052 (.029)	.048 (.029)	.021 (.026)	.020 (.024)	.008 (.024)	[.011]

교과유형1(무용=1)	.207 [*] (.098)	.179 [*] (.090)	.148 (.083)	.122 (.081)	[.056]
교과유형2(음악=1)	.276 ^{***} (.071)	.190 ^{**} (.066)	.089 (.061)	.071 (.059)	[.044]
교과유형3(문화=1)	-.081 (.075)	-.022 (.070)	.047 (.065)	.032 (.063)	[.019]
교수열정		.043 (.059)	-.006 (.054)	-.023 (.053)	[-.022]
과제제시방법		.195 ^{***} (.058)	.091 (.054)	.072 (.053)	[.077]
학습자 유도		.040 (.051)	-.004 (.047)	.003 (.046)	[.003]
학습자 관계		.126 ^{**} (.048)	.060 (.045)	.071 (.044)	[.086]
사회적 만족			.061 (.047)	.055 (.046)	[.057]
정서적 만족			.253 ^{***} (.051)	.237 ^{***} (.050)	[.221]
환경적 만족			.206 ^{***} (.033)	.189 ^{***} (.033)	[.235]
수면장애				.131 [*] (.055)	[.114]
불안·우울				-.286 ^{***} (.057)	[-.245]
F	4.032 ^{***}	5.605 ^{***}	13.638 ^{***}	20.996 ^{***}	20.971 ^{***}
R	.185	.271	.476	.601	.625
R ²	.034	.074	.226	.361	.391
Adj. R ²	.026	.061	.210	.344	.372
SEE	.67	.66	.61	.55	.54

주 : 1) 종속변인은 학업적응 2)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3) []는 5단계 회귀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4)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적응에 관한 단계별 회귀분석

신입생의 사회적응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 모형1의 F검증을 통한 회귀모형 적합도의 검증 결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2단계 모형 2, 3단계 모형 3, 4단계 모형 4, 5단계 모형 5에서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형 1은 성별(남학생=1), 거주지(자가=1), 수강동기1(정서=1), 수강동기2(교과=1), 연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9%이다. 그리고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남학생=1)은 .101이고 수강동기1(정서=1)은 .187로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자가=1)는 .024, 수강동기2(교과=1)는 .092, 연령은 .046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에 포함된 변인에 교과유형 변인을 포함하였다. 모형 2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7.8%로 모형 2를 투입함으로써 약 4.9%의 설명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응에 있어 교과유형 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유형2(음악=1)은 .259로써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된 변인 중 교과유형1(무용=1)과 교과유형3(문화=1)은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유형의 3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1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성별(남학생=1)과 수강동기1(정서=1)은 교과유형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3은 모형 2에 포함된 변인에 교수행동 변인을 포함하였다. 모형 3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3%로 모형 3을 투입함으로써 약 15.2%의 설명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응에 있어 교수행동 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된 변인 중 교수열정, 학습자 유도는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행동의 4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2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성별(남학생=1),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2(음악=1)은 교수행동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4에서는 수업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사회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정서적 만족 등을 포함한다. 3개 변인을 투입한 모형 4의 설명량은 36.8%로써 모형 3보다 약 13.8% 정도 설명량이 많아졌다. 이에 사회적응에 있어 수

업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나 투입된 변인 중 사회적 만족은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후 성별(남학생=1)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2(음악=1),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결국,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2(음악=1),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관계는 수업만족도 변인으로 통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5에서는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을 포함한다. 2개의 변인을 투입한 모형 5의 설명량은 50.4%로써 모형 4보다 약 13.6% 정도 설명량이 많아졌다. 이는 사회적응에 있어 스트레스 변인은 중요한 영향력임을 나타내며,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의 2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4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성별(남학생=1), 정서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은 스트레스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5> 사회적응 단계별 회귀분석

변인	사 회 적 응					표준화 회귀 계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	2.931 ^{***} (.486)	2.925 ^{***} (.475)	1.926 ^{***} (.447)	1.135 ^{**} (.414)	2.610 ^{***} (.386)	
성별(남학생=1)	.101 [*] (.050)	.108 [*] (.050)	.120 ^{**} (.046)	.102 [*] (.042)	.100 ^{**} (.037)	[.084]
거주지(자가=1)	.024 (.062)	-.006 (.061)	-.009 (.056)	.032 (.051)	.002 (.045)	[.002]
수강동기1(정서=1)	.187 ^{**} (.072)	.151 [*] (.072)	.134 [*] (.066)	.046 (.061)	.034 (.054)	[.020]
수강동기2(교과=1)	.092 (.062)	.099 (.061)	.069 (.056)	.065 (.051)	.024 (.045)	[.016]
연령	.046 (.025)	.043 (.025)	.019 (.023)	.014 (.021)	-.004 (.019)	[-.006]
교과유형1(무용=1)		.150 (.084)	.119 (.078)	.085 (.071)	.051 (.063)	[.027]
교과유형2(음악=1)		.259 ^{***} (.061)	.184 ^{***} (.057)	.091 (.052)	.062 (.046)	[.045]
교과유형3(문화=1)		-.103 (.065)	-.056 (.060)	-.007 (.056)	-.023 (.049)	[-.015]

교수열정	.073 (.051)	.032 (.046)	-.010 (.041)	[-.011]
과제제시방법	.165*** (.050)	.075 (.047)	.034 (.042)	[.042]
학습자 유도	.028 (.044)	-.015 (.040)	-2.11 (.036)	[.000]
학습자 관계	.092* (.042)	.031 (.038)	.049 (.034)	[.069]
사회적 만족		.075 (.040)	.066 (.036)	[.079]
정서적 만족		.259*** (.044)	.220*** (.039)	[.237]
환경적 만족		.138*** (.029)	.110*** (.026)	[.159]
수면장애			.094* (.043)	[.095]
불안·우울			-.458*** (.045)	[-.455]
F	3.439**	5.953***	13.954***	21.638***
R	.172	.279	.480	.607
R ²	.029	.078	.230	.368
Adj. R ²	.021	.065	.214	.351
SEE	.58	.57	.52	.47

주 : 1) 종속변인은 사회적응

2)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3) []는 5단계 회귀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4) * $p < .05$, ** $p < .01$, *** $p < .001$

3) 개인-정서적응에 관한 단계별 회귀분석

신입생의 개인-정서적응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 모형1의 F검증을 통한 회귀모형 적합도의 검증 결과는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2단계 모형 2, 3단계 모형 3, 4단계 모형 4, 5단계 모형 5에서는 모두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

형 1은 성별(남학생=1), 거주지(자가=1), 수강동기1(정서=1), 수강동기2(교과=1), 연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9%이다. 그리고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거주지(자가=1)는 .174이고 수강동기1(정서=1)은 .199로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남학생=1)은 .071, 수강동기2(교과=1)는 .082, 연령은 .043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에 포함된 변인에 교과유형 변인을 포함하였다. 모형 2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5.7%로 모형 2를 투입함으로써 약 2.8%의 설명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서적응에 있어 교과유형 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유형2(음악=1)는 .232로써 개인-정서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유형1(무용=1)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투입된 변인 중 교과유형3(문화=1)은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유형의 3개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형 1에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거주지(자가=1)와 수강동기1(정서=1)은 교과유형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3은 모형 2에 포함된 변인에 교수행동 변인을 포함하였다. 모형 3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15.5%로 모형 3을 투입함으로써 약 9.8%의 설명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서적응에 있어 교수행동 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된 변인 중 교수열정, 학습자 유도, 학습자 관계는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행동 변인을 투입한 후 거주지(자가=1)와 수강동기1(정서=1), 교과유형2(음악=1)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교과유형1(무용=1)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결국, 교과유형1(무용=1)은 교수행동 변인으로 통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4에서는 수업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수업만족도 변인은 사회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정서적 만족 등을 포함한다. 3개 변인을 투입한 모형 4의 설명량은 20.8%로써 모형 3보다 약 5.3% 정도 설명량이 많아졌다. 이에 개인-정서적응에 있어 수업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나 투입된 변인 중 사회적 만족은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후 거주지(자가=1)와 과제제시방법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수강동기1(정서=1)과 교과유형2(음악=1)에 대한 영향

력은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결국, 수강동기1(정서=1)과 교과유형2(음악=1)는 수업만족도 변인으로 통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5에서는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스트레스 변인은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을 포함한다. 2개의 변인을 투입한 모형 5의 설명량은 57.8%로써 모형 4보다 약 37% 정도 설명량이 많아졌다. 이는 개인-정서적응에 있어 스트레스 변인은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한 후 거주지(자가=1)와 환경적 만족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과제제시방법과 정서적 만족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결국, 과제제시방법과 정서적 만족은 스트레스 변인으로 통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개인-정서적응 단계별 회귀분석

개 인 - 정 서 적 응						표준화 회귀 계수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	3.186 ^{***} (.540)	3.178 ^{***} (.534)	2.274 ^{***} (.521)	1.764 ^{***} (.515)	4.477 ^{***} (.397)	
성별(남학생=1)	.071 (.056)	.081 (.056)	.090 (.054)	.073 (.052)	.069 (.038)	[.052]
거주지(자가=1)	.174 [*] (.068)	.156 [*] (.068)	.159 [*] (.065)	.186 ^{**} (.063)	.128 ^{**} (.047)	[.078]
수강동기1(정서=1)	.199 [*] (.080)	.163 [*] (.081)	.158 [*] (.077)	.095 (.076)	.071 (.055)	[.038]
수강동기2(교과=1)	.082 (.069)	.090 (.069)	.066 (.065)	.063 (.063)	-.013 (.047)	[-.008]
연령	.043 (.028)	.040 (.028)	.017 (.026)	.015 (.026)	-.016 (.019)	[-.025]
교과유형1(무용=1)		.185 [*] (.095)	.147 (.091)	.128 (.088)	.071 (.065)	[.033]
교과유형2(음악=1)		.232 ^{***} (.069)	.164 [*] (.066)	.105 (.065)	.054 (.048)	[.035]
교과유형3(문화=1)		-.040 (.073)	-.012 (.070)	.021 (.069)	-.004 (.051)	[-.003]

교수열정	.113 (.059)	.084 (.058)	.005 (.042)	[.005]	
과제제시방법	.178 ^{**} (.059)	.113 [*] (.058)	.036 (.043)	[.040]	
학습자 유도	.041 (.051)	.015 (.050)	.042 (.037)	[.053]	
학습자 관계	-.008 (.048)	-.052 (.048)	-.019 (.035)	[-.024]	
사회적 만족		.076 (.050)	.060 (.037)	[.064]	
정서적 만족		.117 [*] (.055)	.043 (.040)	[.041]	
환경적 만족		.125 ^{***} (.036)	.077 ^{**} (.026)	[.099]	
수면장애			.126 ^{**} (.044)	[.115]	
불안·우울			-.812 ^{***} (.046)	[-.725]	
F	3.419 ^{**}	4.247 ^{***}	8.574 ^{***}	9.747 ^{***}	44.664 ^{***}
R	.171	.238	.394	.456	.760
R ²	.029	.057	.155	.208	.578
Adj. R ²	.021	.043	.137	.187	.565
SEE	.65	.64	.61	.59	.43

주 : 1) 종속변인은 개인-정서적응

2)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3) []는 5단계 회귀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4)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배경특성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5개 변인들 중 수강 동기1(정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별(남학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 수강동기가 학생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남학생이 학업적응에 있어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 차이가 분명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3개의 교과유형 변인 중 음악교과가 학업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무용교과가 다음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일반 강의식 정규교양교과의 음악 및 무용수업이나 이론 위주의 문화수업보다는 실기경험 위주의 음악 및 무용 교양수업의 특성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서안정을 도모하여 학업적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4개의 교수행동 변인 중 과제제시방법과 학습자 관계가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교과유형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미했던 성별(남학생), 수강동기1(정서), 교과유형1(무용), 교과유형2(음악)는 교수행동의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서함양을 위해 선택한 수업인 만큼, 실기수업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과제에 충분한 호기심을 가졌고, 실기수행 위주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수업만족도와 학업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3개의 변인 중 정서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이며, 수강동기1(정서), 교과유형1(무용), 교과유형2(음악),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관계는 수업만족도의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없어졌다. 즉, 학생의 정서적 안정, 음악 및 무용교과 교양수업, 교수자의 과제제시방법이나 학습자와의 관계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학생이 수업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 성취감, 수업참여의 즐거움, 자신감, 재수강의 의욕, 수업장소의 적절함, 시설의 편안함, 쾌적함 등의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학업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수면장애와 불안 및 우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여타의 요인이 투입되어도 이러한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결과에서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수면장애가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불안 및 우울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측면에서 더 나은 성적향상과 학습성취를 위한 준비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학생배경특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5개 변인들 중 수강동기1(정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별(남학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서안정을 목적으로 한 수강동기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의 사회적응도는 여타의 요인을 통제하여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차이가 분

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3개의 교과유형 변인 중 음악교과가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과 교양수업에 해당하는 가창 실기, 재즈 피아노, 재즈 음악감상 등의 실기 위주 수업이 학생들의 정서적 순화를 도우며, 실기교정 피드백 등의 실질적인 음악수업과정에서 교수자-학생, 학습공동체 상호 간의 소통과 체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활동과 수업구성원 간의 원활한 교류가 융화됨으로써 사회적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개의 교수행동 변인 중 과제제시방법과 학습자 관계는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유형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미했던 성별(남학생), 수강동기1(정서), 교과유형2(음악)는 교수행동의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응에 있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측면과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응 향상에 있어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채로운 표현방식의 실기과제를 접하고 학습내용을 쉽게 성취하는 경험, 학습자와의 활발한 교류 및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만족도와 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3개의 변인 중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이며, 수강동기1(정서), 교과유형2(음악), 과제제시방법, 학습자 관계는 수업만족도의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영향력이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신선한 기회 제공, 수업활동의 즐거움과 자신감, 다른 유사강좌에 대한 수강희망 등의 수업만족과 환경측면의 편안한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수면장애는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불안 및 우울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여타의 요인이 투입되어도 이러한 영향력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전술한 스트레스 요인인 수면장애의 효과는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논의하였으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장애의 영향은 학업적응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면장애가 사회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배경특성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5개 변인들 중 수강동기1(정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주지(자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수강동기가 개인의 정서안정을 위한 것으로써 사고의 유

연성을 기르며 전인적 교육에 도움이 되어 정서조절과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여타의 요인을 통제하여도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자가 외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정서적응도가 높아 거주지의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3개의 교과유형 변인 중 음악 및 무용교과가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및 무용교과의 교양수업이 교수자의 시범으로 다양한 역할임무를 수행했으며, 비언어적 표현활동의 경험부여를 통해 학생의 창의성을 육성하고 자기개성 표현능력을 증진하여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정서조절에 도움을 주어 개인-정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개의 교수행동 변인 중 과제제시방법은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교과유형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미했던 거주지(자가), 수강동기1(정서), 교과유형2(음악)는 교수행동의 변인이 투입되어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개인-정서적응 향상에 있어 학생들이 자가에서 거주하는 것과 정서함양의 수강동기, 교수자의 모델링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과 실기체험을 부여하는 음악교과 교양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실습경험을 제공하는 예술문화교과의 실기수업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을 주는 과제제시방법이 학생들의 개인-정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만족도와 개인-정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3개의 변인 중 개인-정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이다. 그리고 수강동기1(정서), 교과유형2(음악)는 수업만족도의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영향력이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실습 위주 수업 참여활동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다양한 예술문화교과 교양수업의 수강희망, 자신감, 성취감 등을 통한 정서적 만족과 수업환경의 부대시설 및 공간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만족감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개인-정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과제제시방법과 정서적 만족의 영향력은 사라졌으나 수면장애, 불안 및 우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분석결과에서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수면장애는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불안 및 우울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수면장애가 개인-정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써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은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요

한 요인은 수업만족도이다. 또한, 음악교과 교양수업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면장애 변인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학업적응 면에서는 학생들이 수업과정에서 정서적·환경적으로 만족해야 효과가 지속적이므로 수업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교수행동으로 능동적인 실기교육활동을 이끌어 내고, 학생들의 독창성 및 창의성 육성과 잠재된 음악표현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며, 실습수업 장소환경의 적절한 개선으로 수업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양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학업적응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만족을 돕는 예술문화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음악교과 교양수업 교수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교육 실기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의 질적 관리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응 면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환경적인 수업만족을 위해 우수한 음악교육방식을 적용한 교수행동 모델링으로 수업구성원의 원활한 참여와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만족하고 적절한 상호관계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적응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수업만족을 위해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교수자는 수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고, 음악미적 감각자극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과 활발한 개인 및 소집단 협동학습을 진행하여 학습공동체의 소속감을 향상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음악수업활동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실기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학생들의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신선한 예술적 창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입생의 전인교육에 있어 역할모델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서적응 면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높아야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적·환경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쉽고 즐거운 질 높은 실기교육을 해야 하며,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음악교양수업의 교과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그룹별, 각 단계별 실기교육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안락한 실습수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의 변화를 촉진하게 하여 학생들의 음악감성교육과 개인-정서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향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실기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교수자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수방법 연수,

교양수업용 실기교재 및 교양음악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단계별 실기학습과 재교육 및 연속교육이 이루어지는 성인 평생학습 측면에서 학교교육문화 조성이 필요함이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실기교육을 위한 개인과 소그룹 단위 실습실 확보, 연주회와 그룹 활동, 악기대여 비용 등, 학교와 관계 기관은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적응의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 교양수업의 특수성에 적합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즉, 일반 강의식 정규교과의 이론 위주 교양과정에는 해당되는 척도가 아닌, 실기수업활동을 포함한 교양교육의 실제 수업현장에 적합하고 대학환경의 현 실정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수면장애 변인이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수면장애를 보일수록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설명이 어려운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추가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배경특성, 교과유형, 교수행동, 수업만족도,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외 다른 요인들과 학교적응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학교적응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영 (2003). **서울대학교 교양 음악교육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가희 (2009). **대학 교양체육 교수행동과 강의만족, 강의구전 의도, 운동지속의 사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근자 (2009). **사물놀이 활동을 통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

음악교육, 10, 1-38.

김상룡 (2009). **대학생의 여가·레크레이션 참여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아실현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아 (2009). **부적응적 인지도식과 역기능적 신념이 대학생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 (2004). **ESP 수업에서의 학습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김광웅 (2007).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1), 35-46.

김희숙 (2006). 정서조절양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0, 176-201.

박소연 (2007).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 참여 동기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일수 (2009). 협동학습의 학업성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2(1), 73-101.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1). 2001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신명희, 박명순, 권영심, 강소연 (2002).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심혜숙, 박정미 (2003).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3), 505-527.

안지연, 임희경 (2005). 여대생의 대학생활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33-239.

양현정 (200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혜선 (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지향, 김선미 (2009). 통합적 접근에 의한 대학 교양 음악수업 지도방안연구. **음악교육연구**, 36, 167-203.

유지현 (2012). **학업적 정서조절 척도개발 및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 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10(2), 1-25.

- 이은주 (2011). 교류분석을 통해 살펴본 예능교사의 교수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1), 99-124.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장지원 (2012).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0(3), 183-197.
- 정현주 (2006). 음악의 인지기술과 학습기술과의 관계. **음악치료교육연구**, 3(1), 63-76.
- 조명주 (2007). **학습자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연 (2011). 공교육으로서의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정책 고찰. **예술교육연구**, 9(2), 41-56.
- 최애나, 박형준 (2008). 음악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은 청소년의 뇌파 변화 및 정서, 우울,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13-25.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한유경 (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한양상담센터 (2010).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ker, R. W., McNeil, O. V.,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4-103.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Bruscia, K. E. (2006). 음악심리치료의 역동성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최병철, 김영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

- Coffman, D. L., & Gilligan, T. D. (2002). Social support, stress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53-66.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oley, C. H. (1956).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Illinois: Free Press.
- Cooper, H. M. (1979). Some effects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academic expect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9-49.
-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 237-288.
- Gardstrom, S. C. (1999). Music exposure and criminal behavior: Perceptions of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36, 207-221.
- Gary, F. (2004). Stress reactivity and vulnerability to depressed mood i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789-800.
- Hanser, S. B. (1999). *The new music therapist's handbook*. (Edited and Introduced by R. McDerm). San Francisco: Harper & Row.
- Huron, D. (2003). Is music an evolutionary adaptation? In I. Pereta and R. J. A. Zatorre (Ed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 (pp. 57-7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ng, G. B. (2002). A study on the use of ICT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3(2), 267-290.
- Kaplan, M. (1990). *The arts: A social perspective*. Rutherford,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Keith, D. R. (2005). *Understanding music improvisations: A comparison of methods of meaning-ma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Kogan, N. (1997). Reflections and aesthetics and evolution. *Critical Review*, 11(2), 193-210.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 Meadan, H., & Monda-Amaya, L. (2008). Collaboration to promote social competence for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in the general

- classroom: A structure for providing social support.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3(3), 158-167.
- Merriam, S. B. (2001). Something old, something new: The changing mosaic of adult learning theory. *Andragogy Today*, 4(1).
- Monroe, S. M. (1983).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urther issues and finding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6, 189-205.
- Mursell, J. L. (1993).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Human Values in Music Education*]. (강문칠 역), 서울: 삼호출판사. (원전은 1934)
- Ostrander, S., Schroeder, L., & Ostrander, N. (1994). *Super learning 2000*. New York: Delacorte Press.
- Perry, K. E., & Weinstein, R. S. (1998). The Social context of early schooling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3(4), 177-194.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463-474.
- Stern, M., & Zevon, M. A. (1990). Stress, coping, and family environment: The adolescent's response to naturally occurring stresso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90-305.
- Stronge, J. H. (2002). *Qualities of effective teache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Upcraft, M., Gardner, J., & Barefoot, B. (2009). 신입생 교육: 도전과 지원 [*Challenging and supporting the first-year student: A handbook for improv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이지현, 김영록, 박선희 공역), 서울: 학이당. (원전은 2005)
- Weinberg, N., Uken, J. S., Schmale, J., & Adamek, S. (1995). Therapeutic factors: Their presence in a computer-mediated support group. *Social Work for Groups*, 18(4), 57-69.
- Wentzl, K. R. (200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G. E. Miller,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Vol. 7, pp. 235-258). NJ: John Wiley & Sons.

Wenz-Gross, M., & Siperstein, G. N. (1998).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 at risk in middle school: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Exceptional Children*, 65, 91-100.

Wood, D. (1996). *Move, sing, listen & play* (rev. ed). Toronto Thompson.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and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of Freshmen**

Han, Su-Jeong · Han, Kyu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for freshmen.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573 male and female freshmen, who are attending culture and arts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of a university in K region. A survey about features of student background, subject type, teaching behavior, class satisfaction, stress, adjustment of school life were used as the measuring instrumen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applied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of freshme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factors of student background, subject type, teaching behavior, class satisfaction and stress, while class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the critical factor that had a common effect. In addition, the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ver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Therefore, for the increase of students' class satisfaction, an efficient teaching behavior must promote a change in the stress factor, while invigorating a practice-oriented general elective education based on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to encourage improvement for a new and differentiated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improvement of practical education in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a school education culture must be established in the level of Adult lifelong learning with a phased practical studies and continuous education.

key words: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teaching behavior, class satisfaction, stress, adjustment of school life, Regression Analysis

투고일: 2013년 8월 31일, 심사(수정): 9월 27일(10월 20일), 게재확정일: 11월 8일